

영화 ‘러덜리스’,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것은...*

하 병 학**

주제분류 서양 현대철학, 현상학, 심리철학

주요어 후회, 영화 <러덜리스>, 막스 셸러, 사후가정사고, 수정불가능성

요약문

본고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과오에 대한 후회가 지닌 의미를 밝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양 전통철학에서 후회는 고통과 불쾌감이 수반되는 개인적 감정으로 간주됨에 따라 주요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전통에 서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와 달리 후회의 긍정적 의미를 말하는 학자로는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셸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막스 셸러는 전통철학이 후회의 구조연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면서 후회가 지닌 도덕적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풀어낸다. 이 글은 영화 <러덜리스>를 소재로 삼아 후회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후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이유는 후회가 과거 자신의 과오와 관련되어 있어 수정할 수 없고, 따라서 후회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회의 특징들을 해명한다. 즉 후회는 자신의 자발적인 행위와 관련된다는 점, 그리고 사실판단을 넘어 가치/도덕 판단에 기인한다는 점, 후회가 지속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타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후회는 의식 내의 현상이어서 잊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후회의 긍정성은 수정에 대한 지향성 때문인데, 이것은 실질적 충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아가 후회는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자는 후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철학 상담, 인격 교육 등에서 후회의 가치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본 연구는 202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인간에 대해 중요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구분은 후회하는 인간과 후회하지 않는 인간이다.” (톨스토이)

1. 인간과 후회

후회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어린 유아
가 아니고는 말이다. 그만큼 후회는 인간의 삶, 본성과 직결되어 있다.
‘후회’란 사전적 의미로 “늦은(後) 뉘우침(悔)”이라는 뜻이다. 후회는 자
신의 잘못에 대해 깨달음이 언제나 후발적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고통,
불쾌를 수반한다. 그래서 후회라는 말에 가장 많이 붙는 형용사가 “뒤늦
은”이고, 즉 “뒤늦은 후회”,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만시지탄(晩時之歎)”
이라는 사자성어이다. 또한 “회무급의(悔無及矣)”, “후회막급(後悔莫及)”,
즉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가 말하듯 후회해 봐야 소용
이 없다는 점이 후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해된다. 이는 후회란 흘러
간 시간, 그리고 시간이라는 한계를 지닌 인간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음
을 말해준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약이다”, 운명을 거
슬릴 수 없으므로 “(달리 도리 없으니) 잊어버려라!”라는 말로 위로를 하
곤 한다.

후회에는 사소한 것도 있고, 치명적인 것도 있다. 어제 밤에 귀가하면
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사지 않았던 식재료가 오늘 당장 필요함을 느
끼고 사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사소하며 단지 귀찮음이라는 대
가를 치르면 된다. 하지만 예전에 유명 코미디언 이모 씨가 흡연을 했던
것을 후회하는 금연 홍보영상에서 후회는 되돌릴 수 없으며 그 결과도
치명적이다. 어찌면 자신의 생명을 잃음보다 더 심각한 후회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타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일

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후회를 부정적으로 본다. 후회는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고, 후회하는 것보다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후회가 심각하면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낳기도 한다. 여기에서 “잘못을 하다”에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해당된다.

후회가 이성적 반성인지, 또는 고통을 수반하는 감정인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현대에 들어와 후회에 대해 연구가 한창인 심리학에서도 인지와 감정 중 어느 것이 후회에서 더 중요한지는 논란의 대상이다.¹⁾ 분명한 것은 후회하는 과정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 분석과 해석, 판단, 그리고 이와 동반되는 관념, 표상 등 지적 활동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만큼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즉 후회하는 과정에서 슬픔, 고통, 불쾌감, 낭패감과 자신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자괴감, 그리고 타인과 관련한 미안함, 연민, 분노, 모멸감, 그리움, 빚 부담감(채무감) 등 다양한 감정도 동반될 수 있다.

후회는 인간의 삶과 떼어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인 것이어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후회하는 인간의 모습이 발견된다. 그래서 신화, 소설, 시, 영화, 만화, 노래, 격언 등에서도 후회를 모티브로 하는 것이 많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살펴보자.

그리스 신화에서도 후회는 빠지지 않는 주제이다. 테베의 라이오스 왕

1) 후회와 관련하여 심리학에서는 인지에 중점을 둔 학자들과 인지 결과에 따른 정서, 감정을 강조하는 학자들로 나뉜다. (정영숙, 「대학생의 후회 유형과 후회 관련 정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1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51쪽.) 심리학자 레스 패롯은 후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후회는 이루어지지 않은 욕구로 인한 실망이나 상실, 또는 과거에 했거나 미래에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생긴 고민 같은 하나의 감정이다. (『후회의 심리학』, SFC 출판부, 2005, 16~17쪽.) 허태균은 후회를 “매우 부정적인 정서(때론 필요 이상의)“로 규정한다. (『사후가정사고의 심리적 기능과 응용적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 8, No. 2, 2002, 172쪽.)

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범한다’는 신탁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버려진 오이디푸스는 괴물 스팅크스의 퀴즈를 풀어낼 정도로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우연한 일로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게 되고 테베의 왕이 된 오이디푸스는 과부가 된 왕비를 아내로 삼는다. 테베에 창궐한 역병을 해결하고자 신전을 찾은 그는 라이오스 왕의 살해자를 찾아내야 역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살해자를 찾던 중 바로 자신이 살해자이며, 라이오스가 자신의 아버지이고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눈을 뽑는 처벌을 내린 후 낭인으로 살다가 죽는다. 오이디푸스의 기구한 운명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오이디푸스의 후회가 얼마나 처절했을지도 사뭇 느껴진다.

후회와 관련된 노래를 하나 살펴보자. 가수 강산에가 부른 “넌 할 수 있어”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건널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노랫말처럼 후회를 가위로 잘라내듯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다 지난 일이야”라는 말에서 후회해 봐야 소용없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노랫말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말도 나온다. 어쩌면 후회만 하지 말고,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바로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운다.

이 세상에 가장 슬픈 동화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도 ‘청개구리’라고 말할 것 같다. 엄마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던 어린 청개구리가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후회를 하며, 큰비를 막아내 보려고 물질을 하다가, 더 이상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자, 평생 비만 오면 목 놓아 노래 부른다는 이야기이다. 청개구리의 어리석음과 불효를 탓하며 후회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교훈으로 이 동화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 같다. 후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터인데 겁박처럼 들리는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비인간적인가.

이에 비해 공자의 말씀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자로가 말하였다. ‘만약 선생님께서 三軍을 거느리신다면 누구와 함께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으려 하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려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자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계획하기를 좋아하여 성공하는 자와 함께 할 것이다.’”²⁾

여기에서 후회에 대한 가르침은 두 가지로 이해된다. 첫째,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좋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실천적 지혜, 명예를 존중함, 용기, 절제 등이 필요한데,³⁾ 후회는 이러한 덕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후회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어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다. 후회할 짓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후회할 짓을 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는 것이다. 또한 공자는 단명한 애제자 안위에 대해 “분노를 읊기지 않았고,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다.”⁴⁾라고 칭찬하였다. 이는 과오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

2) 공자, 『논어』, 김석원 옮김, 숲이편 10장, 혜원출판사, 1994, 146쪽. “子路曰 子行三軍則誰與.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

3)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옮김, 도서출판 길, 2011, 3권 등.

이 되기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회가 필요함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은 이제까지 후회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고, 또한 이에 대한 조언과 위로, 예컨대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 “후회해 봐야 소용없다”,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잊어라!” 등이 너무 쉽게 내뱉어지고 들린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러한 조언과 위로는 후회되는 행위를 쉽게 망각하게 하고 무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러한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 후회의 경우가 많을뿐더러 인간에게 운명과 같은 후회가 마냥 부정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정·만회할 수 없는 과오에 대한 후회,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동일한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경우, 예컨대 동화에서 청개구리의 경우, 후회는 어떤 의미가

4) 공자, 『논어』, 용야편, 2장, 117쪽. “不遷怒 不貳過.” 한편 후회를 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잘못에 기인하느냐에 대한 선인들의 생각도 참고할 만하다. 성호 이익(1681~1763)은 구 내공(寇萊公)의 <육회명(六悔銘)>를 읽고 여기에 덧붙여 자신이 생각하는 여섯 가지 후회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구 내공의 <육회명(六悔銘)>: “관리로서 부정(不正)하면 실세(失勢)했을 때 후회하고, 부자가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하고, 젊어서 배움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시기를 넘겼을 때 후회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아니하면 쓸 일이 있을 때 후회하고, 취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깎을 때 후회하고, 편안할 때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들었을 때 후회한다.[官行私曲失時悔 富不儉用貧時悔 學不少勤過時悔 見事不學用時悔 醉後狂言醒時悔 安不將息病時悔]”

이익의 육회명(六悔名): “행동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뒤쳐졌을 때 후회하고, 이익을 보고 의를 잊으면 깨달았을 때 후회하고, 남의 뒤에서 단점을 논하면 대면했을 때 후회하고, 일을 처음에 살피지 않으면 그르쳤을 때 후회하고, 격한 감정에 나를 잊으면 환난을 당했을 때 후회하고, 농사에 힘쓰지 않으면 수확할 때 후회한다.[行不及時後時悔 見利忘義覺時悔 背人論短面時悔 事不始審債時悔 因憤忘身難時悔 農不務勤穡時悔]” (<성호전집>, 48권, 명, 6가지 후회에 대한 명[六悔名]),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489A_0480_030_0010

있을까 하는 것은 인간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해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물음이다.

이 글은 영화 <러덜리스>를 소재로 삼아 후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감정을 분석할 때 소설, 영화 등의 문예작품이 대단히 요긴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감정 표현이 상이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어떤 감정이 다른 감정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상황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타인과의 교감에 따라 변화하기 쉬운데, 그러한 상황과 현상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예작품이기 때문이다. 먼저 철학사에 나타난 후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자.

2. 후회에 대한 철학적 이해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동일한 일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벼운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특징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깊은 후회를 하는 사람은 우선 기억력이 좋고, 사안에서 자신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어서 자신이 한 과오의 내용을 세세하게 따지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공감하며, 자신에게 냉정하며, 경우에 따라 소심하고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후회할 만한 짓을 하고도 후회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못하며, 사안에서 자신과의 연관성과 자신의 과오를 섬세하게 따지지 않고, 과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며, 자신의 행위, 태도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하고, 익숙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며,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다.

후회는 전통적으로 철학의 주제가 아니었다. 서양 전통철학에서는 이

성, 진리, 보편성 등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후회란 이성의 활동과 무관하고, 바람직한 덕목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불쾌를 동반하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보는 경향이 짙었다. 후회는 철학보다 신학에서 회개, 속죄, 참회, 고해성사 등과 관련지어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셸러와 같은 철학자들도 후회를 논할 때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후회에 대한 주요 철학적 이해를 간략히 살펴보자.

서양 전통철학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탁월성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추구할 덕목들을 논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후회가 자리잡을 곳은 없다. 다만 그는 자발적인 행위와 비자발적인 행위를 다루면서 후회를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자발적인 행위들은 칭찬과 비난이, 비자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와 연민이 가능하다.⁵⁾ 그는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혼란스러운 경우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강제와 무지(agnoia)로 인한 것만이 비자발적이라고 말한다.

“무지로 말미암아 행한 사람들 중 후회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비자발적으로 행한 것(akon)으로 보이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면, 전자와는 다른 경우이므로 ‘내켜서 하지 않은 것’(ouch hekon)이라고 해 두

5)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글, 3권 1장, 1109b, 82쪽. 여기에서 ‘자발적’(voluntary), ‘비자발적’(unvoluntary)으로 번역된 용어는 희랍어 ‘hekousion’과 ‘akousion’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둘에는 ‘기꺼이 하는 마음’(willingness)과 ‘꺼리는 마음’(unwillingness)도 포함되며, 문맥에 따라 ‘의도적인’과 ‘의도적이지 않은’도 포함된다. (참조: 크리스토퍼 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입문』, 김요한 옮김, 서광사, 2011, 109쪽.)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한 행위도 경우에 따라 ‘hekousion’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발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그가 자제력 없이 삶을 영위해 왔고 의사들의 말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병에 걸린 것이라면, 그는 자발적으로 병에 걸린 것이다. (...) 그 원리가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정의한 사람과 무절제한 사람 양자에게 공히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그런 사람이 된 후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글, 3권 5장, 1114a, 97쪽.)

자.”⁶⁾

이를 해석하면, 무지로 인해 잘못을 행한 사람이 나중에 그리함을 인지하고 고통과 후회를 느끼는 경우, 그는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뜻하고, 이는 비자발적인(비의도적인) 행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용서와 연민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고통과 후회도 느끼지 않는다면, 다만 ‘내켜서 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용서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요컨대 후회가 덕은 아니지만, 잘못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것보다는 후회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후회에 대한 전통적인 철학적 이해를 잇는 스피노자는 후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후회란 우리들이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행하였다고 믿는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⁷⁾ 그리고 후회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한다.

“후회는 덕이 아니다. 즉 이성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행위를 후회하는 자는 이중으로 비참하거나 무능하다.”⁸⁾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성을 강조하고 후회가 이성에서 생기지 않음을 말할 뿐, 후회를 마냥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위의 인용문 <정리 54>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생활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들 두 정서, 즉 겸손과 후회 그리고 희망과 공포는 해악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준다.”⁹⁾

6)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글, 3권 1장, 1110b, 82쪽.

7) B. 스피노자, 『에티카』, 강영계 옮김, 제3부 정서의 정의 27, 서광사, 1990, 195쪽

8) B. 스피노자, 위의 글, 제4부 <정리 54>, 255쪽. 여기에서 “이중적으로”라고 한 이유는 “후회하는 자는 처음에는 사악한 욕망에 그다음은 슬픔에 의하여 정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9) 위와 같은 곳.

이러한 후회에 대한 주지주의적 이해(Intellectualism)에 대해 비판하는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쇼펜하우어는 이성이 세계에 대한 인식의 근원이라는 이성주의를 부정하고 이성으로 파악된 세계는 표상의 세계에 불과하다는 주의주의(Voluntarism)의 입장을 표명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본질은 생에 대한 불변적이고도 맹목적인 의지이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후회는 의지의 변화(불가능한 일이지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서 생기는 것이다. (...) 나는 내가 의욕한 것을 결코 후회할 수 없지만, 내가 한 일은 후회할 수 있다. 내가 그릇된 개념에 인도되어 내 의지에 따르는 것과는 다른 일을 했기 때문이다.”¹⁰⁾

즉 후회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의 의욕과 다른 의욕이 생긴 것 때문이 아니라 의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식의 잘못, 지성의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후회는 의지와 의지를 수행하는 행위의 불일치에 대한 시정된 인식이다.

후회를 가장 긍정적으로 본 철학자는 키에르케고르이다. 교회 비판자이자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심미적 선택을 부정하고, 선택이란 본질적으로 윤리적이며,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 선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절대적인 고립이어서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러한 싸움의 표현이 바로 후회라고 하였다.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떠맡고 자기 자신을 옷을 입듯이 입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침투시켜서, 그 결과로 모든 운동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수반될 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윤리적으로 선택한 셈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누우친

10)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홍성광 옮김, 을유문화사, 2009, 493쪽.

샘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그는 구체적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전적인 고립 속에서 그가 속하고 있는 현실과의 절대적인 지속성 속에 있게 된다.”¹¹⁾

그는 특히 후회의 신학적 가치를 강조하는데,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오직 “후회”라는 낱말만 있을 뿐이며,¹²⁾ 후회는 하느님이 준 단 하나의 은총이라고 하였다.¹³⁾

철학에서 후회에 대한 대표적인 논저 중 하나는 셸러의 “후회와 재탄생(거듭남)”이다. 셸러는 당시 철학이 후회를 “단지 부정적이고 동시에 가장 비경제적이며 쓸데없는 활동, 즉 잡다한 종류의 미망, 무사고력 또는 질병으로 퇴행하는 영혼의 부조화라고 보는 데 익숙해 있다”¹⁴⁾고 비판한다. 그리고 양심의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후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회는 영혼의 무익한 짐도 자기기만도 아니며, 영혼의 부조화를 보여주는 한갓 증상도, 지나간 과거,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항하는 우리 영혼의 어리석은 충동도 아니다. 그 반대로 후회는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자기치유의 형식이며, 나아가 영혼이 잃어버린 힘을 다시 얻는 유일한 길이다.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 보면, 신으로부터 영혼이 멀어질 때 후회는 다시 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이 영혼에게 양도한 자연적인 힘이다.”¹⁵⁾

셸러의 진단에 따르면, 후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인간의 정신적

11) 키에르케고르, 『이것이냐 저것이냐』, 제2부 하, 임춘갑 옮김, 종로서적, 1981, 152~153쪽.

12) 키에르케고르, 위의 글, 101, 103쪽 등.

13) 키에르케고르, 위의 글, 136쪽.

14) M. Scheler, “Reue und Wiedergeburt”, *Vom ewigen im Menschen, Ges. Werke* 5. Bern. 1954. S. 29~30.

15) M. Scheler, 위의 글, S. 33.

삶의 내적 구조연관(Strukturzusammenhang)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 그는 보복, 두려움, 숙취 등의 관점에서 후회를 규정하는 이론들의 한계들을 비판한다.¹⁶⁾ 그리고 후회가 지닌 도덕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기억, 양심 등 후회의 의미구조를 시간이라는 삶의 흐름에서의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가치현상학과 종교현상학적 관점에서 풀어낸다. 셸러에 따르면 고해성사란 후회되는 자신의 행위를 고백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자신과 신 사이의 신앙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후회를 궁극적으로 “우리의 도덕적 행위들의 마지막 뿌리로, <재탄생(거듭남)>으로”¹⁷⁾ 이끄는 동인이라고 말한다.

3. <러덜리스>에 나타난 후회의 의미

1) 영화 <러덜리스>에 대한 소개

영화 ‘러덜리스 Rudderless’(감독: 윌리엄 H. 머시, 주연: 빌피 크루덤, 2014년)는 스케일이 크거나 제작비가 많이 투자되고 흥행에 성공한 블록버스터도,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도 아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복잡한 갈등 구조나 긴장 관계도, 법정 영화처럼 대사를 세밀히 따져봐야 할 논증도 나타나지 않는다. ‘러덜리스’는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원스’, ‘비긴 어게인’처럼 음악 영화로 비추어진다. 영화 제목도 영화 속

16) 이 세 이론에 대한 셸러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복 이론은 과오를 범한 자신에 대한 보복, 자기처벌, 예컨대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다”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후회의 의미이다. 두려움 이론은 근대에 들어와 퍼진 것으로 후회란 이미 처벌받은 경험의 연상으로 인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규정한다. 숙취이론(Katertheorie)은 철학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행위 후 긴장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상실되는 것과 비슷하게 후회란 과오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여파와 같은 도덕적 숙취, 무력감, 의기소침이라고 말한다. 셸러는 이러한 이해들은 모두 후회를 무익하고 나아가 해로운 것으로 볼 뿐이라며 비판한다. (M. Scheler, 위의 글, S. 31~33.)

17) M. Scheler, 위의 글, S. 41.

밴드 이름이고, 영화에서는 많은 노래들을 들을 수 있다. 다른 한편 '러덜리스'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되기도 한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주옥과도 같은 노래를 통해 이제까지 사회적 담론의 수위로 떠오르지 못한 가해자 가족들의 아픔도 진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노랫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영화에 대한 국내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일반 에세이에 해당되는 “영화 영성 교육”¹⁸⁾과 참고 문헌이 하나도 없는 “살인자의 음악에 감동한다는 것”¹⁹⁾만 있을 뿐이다.

필자는 이 영화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후회를 주목하면서 인간이 후회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철학적 관점에서 풀어내고자 한다. 영화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삶이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방향을 잡았을지라도 잘못된 방향을 잡거나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삶의 주인이 자신이지만,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하지만 자신의 습관, 편견에 삶이 휘둘리고, 미래는 예측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엮이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삶일지 모른다.

영화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필자는 후회의 관점에서 <러덜리스>의 플롯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고자 한다.

<플롯 1: 아들 외면하기>

잘 나가던 광고 기획자이자 좋은 아버지인 샘은 아들 조쉬의 대학에서 총기 살해 사건으로 아들을 잃고 삶이 파탄에 이른다. 2년 후, 보트에서

18) 김민수, 「영화 영성 교육 - 러덜리스-Rudderless」, 『교육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Vol. 450, 2015, 140~143쪽.

19) 나도원, 「살인자의 음악에 감동한다는 것은 - 영화 <러덜리스>에서 밴드 '그린 카네이션'까지」,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Vol. 89, 2015, 344~352쪽.

기거하는 샘은 페인트공이 되어 주정뱅이 삶을 근근이 이어간다.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아마추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된다. 어느 날 전처가 찾아와 “조쉬가 없던 애 취급하면서.. [당신은] 숨어 있는 거야”라고 비난하면서 아들이 남긴 유물을 넘긴다.

<플롯 2: 아들 마주하기>

샘은 아들을 마음에서 지우듯 그의 유물을 버리려다 그 속에서 아들이 작사작곡한 노래들을 발견하고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아들의 노래를 부른다. 샘의 노래에 감동한 청년 뮤지션 쿠엔틴은 그에게 함께 노래 부르자고 집요하게 제안하고 결국 그와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군중의 환호를 받는다. 그리고 밴드 “러덜리스”를 결성한다.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던 어느 날, 조쉬의 애인이었던 케이트가 찾아와 샘이 아들의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따라 부르게 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한다. 바로 조쉬가 6명의 학생을 총기로 살해한 범인이었던 것이다. 샘은 잊으려고 했던 조쉬의 무덤을 방문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지는 않는다. 밴드 구성원들도 이제까지 자신들이 부른 노래가 살인자의 곡임을 알고 샘과 절교하고, 밴드도 해체된다.

<플롯 3: 아버지 되기>

다시 혼자가 된 샘은 충격 살인이 있었던 조쉬의 대학에 찾아가 희생자 6명에게 아들을 대신하여 통곡을 하며 사죄를 한다. 그리고 샘 및 음악과 절연한 쿠엔틴을 찾아가 사과를 하고, 그가 갖고 싶었던 기타를 선물하면서 쿠엔틴과 처음 함께 노래를 할 때의 느낌을 고백한다. “내가 모르던 조쉬를 만난 기분이었어. 새로운 곡을 할 때마다 조쉬를 더 알게 되었어. ... 그건 너였어 쿠엔틴.” 그리고 쿠엔틴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마치 조쉬에게 말하는 것처럼 조언을 한다. “포기하지 마. ... 포기하는 자

는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샘은 처음 노래를 했던 카페에 혼자 찾아가 마지막 노래를 한다. 자신이 2년 전 6명을 죽인 살인자 조쉬의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함께 아들이 미완성곡으로 남긴 노랫말에 자신의 말을 넣어서 말이다.

앞에서 개괄한 후회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리얼리스>에 나타난 후회와 관련된 내용과 그 의미를 풀어보자.

2) 아들 외면하기, 후회와 주체성

샘은 좋은 일이 있으면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나름 좋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아들 조쉬는 총기로 6명의 학생을 살해한다. 아들이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플롯 1>에서는 후회가 등장하지 않는다.

후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 예컨대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 4.16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유감, 인간에 대한 실망감 등을 나타낼 수 있어도, 후회할 수는 없다. 요컨대 “후회하다”는 자신의 과거 행위, 태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자를 지칭하는 재귀동사이다. 총기 살해는 샘이 한 행위가 아니므로 샘이 후회할 게 없다. 그래서 아들의 행위에 대해 샘은 후회가 아니라 자괴감을 느껴 자포자기 상태에서 남루한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후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회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후회는 흔히 “내가 ... 했더라면 ... 했을 텐데”로 표현된다.²⁰⁾ 이는 과거 자신의

20) 영어 “counterfactual thinking”은 ‘사후가정사고’ 또는 ‘반사실적 사고’ 등으로 번역된다. 김한승은 「후회 없는 삶은 바람직한가?」(『법한철학』, 제53집, 2009)에서 심리학이 후회에 대해 감정의 기술적 측면에 치중한 반면 규범적 물음을 간과하

행위에 대한 다른 선택 가능성을 말한다. 다른 선택 가능성이 없었던 일에 대해서는 유감, 무력감, 미안함 등이 나타날 뿐 후회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주행 중에 동물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 피할 수 없어 치여 죽음 등 자신이 달리 행위 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적용되지 않는다.²¹⁾

후회는 자신의 과오와 관련된 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회를 회피하는 사람은 그 불편한 사건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일이 흔하다.

요컨대 후회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에서만 나타난다. 후회는 불편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연루되어 있음과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다른 선택 가능성 및 그 우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후회는 그 내용들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기고백을 뜻하며 자발적이고, 따라서 독자적인 자기회복의 시작이다. “내가 ... 했더라면 ... 했을 텐데”는 후회되는 짓을 했을 때 떠올리지 못한 다른 행위의 가능성과 더 나은 가상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후회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시작한다. 후회는 변명과 핑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어도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함을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회는 자기기만을 하지 않음과 자신에게 솔직함의 징표이다.

후회로 인해 깊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조언은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돼”, “앞으로 잘 하면 돼”이다. 후회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심판관이자, 미래에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감독관이기 때

고 있음을 지적하며 후회에는 합리적 측면이 있음을 논구한다.

21) 만일 이 경우에도 후회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만일 내가 그 날 가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기차를 타고 갔더라면”, “만일 내가 잠시 쉬었다 갔더라면” 등.

문이다. 즉 변화 가능성이 있을 때 후회는 자신의 미래와 약속을 하는 계기이다. 그러나 샘에게는 그러지 않을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아들이 6명을 살해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과거 사실이며, 또한 아들마저 죽었으므로, 샘에게는 수정·만회의 가능성이 더 이상 없어서 좌절감, 자괴감, 무기력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자신의 삶에서 지우는 일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3) 아들 마주하기, 후회와 의미 이해

아버지 입장에서든 샘에게는 후회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나름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려 했던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즉 후회를 한다는 것은 사건의 전모와 그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을 뜻한다.

우연한 기회로 아들이 작업했던 노래들을 들으면서 샘은 아들과 함께 노래했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샘이 처음 따라 부르는 아들이 만든 곡 “Home”에서 “멀리 떠나갈수록 더 깨달을수록 집으로 가고 싶네.”라는 노랫말을 읽고 아들이 가족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집”은 화목한 가정, 부모의 따뜻한 손길뿐만 아니라, 조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자기다움으로도 이해된다. 그리고 조쉬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조금만 더 잘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 판단만으로는 후회가 발생하지 않는다. 후회는 자신의 행위가 좋지 못하다는 도덕/가치 판단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파트 값이 급상승한 후 몇 년 전 집을 살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물질적 가치 때문이다.²²⁾ 친구의 돈을 갚지 않은 사실에 대해 후

22) 이러한 후회는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자기자신을 선택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빚을 갚지 않은 것은 좋지 못한 행위라는 도덕 판단으로 인해 후회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전자의 경우는 자신에게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후회는 내면의 증언에 따라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도덕 판단과 결부되어 있다.²³⁾

후회하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거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연관된 타자가 함께 등장한다. 친구에게 빚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과정에서는 자신도 어려우면서도 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줄 때 친구의 모습, 현재 실망하고 분노하는 친구의 목소리, 그 아내의 낮 놓은 시선, 이유도 모른 채 학원을 그만두고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그 자식의 모습이 떠오른다. 시계를 잃어버린 실수에 대한 후회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후회가 지속되는 이유는 시계를 선물하실 때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이다. 후회가 지속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특히 타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 때문이다.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위의 모습, 그로 인해 슬퍼하는, 애처로운, 분노하는 등 타자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후회의 특징이다.

샘은 아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면서 조쉬가 느꼈을 외로움, 자신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괴감, 가족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아들이 은밀하게 보냈을지 모를 도움을 구하는 떨리는 눈길, 목소리를 감지하지 못한 자신을 탓한다. 그리고 아들의 노래를, 살인자의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인해 쿠엔틴과 이별한 후 샘은 처음으로 아들의 묘지를 찾아가다. 하지만 아내가 피해자들의 가족을 찾아가 사죄를 할 것을 제안할 때 그는 거절한다. 비록 아들의 살해를 사실로 인정

“후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23) 후회를 하면서 혼자 회치듯 “아니야! 그건 아니야!”가 이러한 표현이다.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에 대해 사죄할 내용을 충실히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사죄란 사실연관만이 아니라 의미/가치/감정의 연관들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에 대한 공감은 피해자들로 나아가면서 그동안 시치미 뺐던 자신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과정이 이러한 연관들에 도달하자, 샘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헌정비를 찾아가 통곡을 하며 사죄를 한다. 이때서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의 감정을 비로소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회는 자신이 타자들과 얽여 있음을 자인하는 증거이다. 후회는 감정과 함께 드러나는 타자들과의 윤리적 관계 맺기에 대한 인식이자,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의 표명이다.

4) 아버지 되기, 후회의 지향성과 인간 존재

밴드 활동이라는 몽환에서 깨어나 다시 혼자가 된 샘은 처음 노래 불렀던 카페 무대에 담담히 올라간다. 그리고 자신의 나신을 드러내듯 말한다.

“제 아들 이름은 조쉬 매닝이었습니다. 2년 전 6명을 총으로 쏘 죽였죠. 이것은 제 아들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그 사건 이후 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이것은 그 사건에 결박되어 있는 자신의 실존으로부터 도주하지 않겠다는 천명이자,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조쉬의 미완성 노래에 비로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말을 건네는 내용을 덧붙여 노래 부른다. 노랫말이 참으로 애절하고, 인간이 후회하며 산다는 게,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 가슴에 와 닿는다.

<Sing Along - Billy Crudup>

자기 감옥에 갇혀 곱씹고만 있지 // 눈부신 빛에 붙들렸니 눈을 돌려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 생각을 모르겠어 // 내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눈을 돌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더 숨을 들이쉬고 별을 세어봐 (...)
눈을 감고 열을 세어봐 어찌면 사랑만이 답일지 몰라
너의 노랠 부를 길을 찾을 테니 같이 불러다오
도와줘 내가 이해하도록 그 침묵을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모든 것들에
모든 것이 바뀌었지 불이 켜진 뒤에는
솔직함이 우릴 바꾸네 송두리째 (...)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조쉬가 왜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샘이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들이 자기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아들이 왜 그랬던지 이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달라고 한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답은 사랑이라며 아들을 목 놓아 부른다.

후회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흔히 하는 조언은 마치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의 노랫말처럼 “잊어버려라”는 것이다. 하지만 후회를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잊기는 어렵다. 신체의 통증을 의지만으로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후회를 잊기 위해서는 후회를 떠올려야만 한다. “나는 내가 무언가 의식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가 불가능한 것처럼 후회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의식 내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러덜리스>에 대해 후회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이 글이 궁극적으로 대답해야 할 것은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다. 후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된 행위의 빠른 수정이다. 그래서 후회되는 행위와 관련해서 당사자에 대한 사과, 빛 갇음²⁴⁾ 등은 진정성을 담고, 능장

24) 이 글에서는 후회를 대표하는 표현 중 하나로 ‘빛 갇음에 대한 의식’, 채무감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후회의 긍정성은 수정·만회에 대한 지향성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잘못과 관련된 사람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후회를 하여도 실질적으로 만회할 수 없는, 후회가 지향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인간의 한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후회의 지향성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의미 지향성은 실질적인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세상을 떠난 부모가 제삿밥을 실제로 드실 수 없다고 해서 자식이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앞에서 “내가 ... 했더라면 ... 했을 텐데”가 다른 선택 가능성과 더 나은 가상현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때 더 나은 가상현실에 대한 깨달음이란 행위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 체험을 말한다. 의미 체험은 현실성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다.

<러덜리스>에서 죽은 아들의 미완성곡에 노랫말에 덧붙여 아들과의 상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후회의 의미 지향성을 말한다. 의미 지향성은 단선적이 아니며, 의미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는 다양한 의미연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샘이 조쉬에게 말을 건네는 “Sing Along”에서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탈자아 되어가는 아들의 어두움, 고립감, 대상 없는 분노 등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슬픔, 사회적 성공만을 삶의 목표로 삼아 아들을 홀로 두고서도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착각, 사건 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지우고자 줄행랑쳤던 부덕(不德)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며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을 고백한다. 그리고 아들로 인

내세우고 있다. 이는 타인과 관련하여 후회가 지향하는 ‘변경·만회·복원’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할 것에는 빛만 아니라 은혜도 있다. 은혜는 타인이 자신에게 한 좋은 행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원인이 타자에게 있는 반면, 빛은 자신이 타인에게 행한 나쁜 행위로 인한 미안한 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지라도 아들과 함께 손가락질을 받고자 하는 참회, 그리고 후회를 통해 “솔직함”으로써 송두리째 바뀐 자신이 이제부터 아들을 자신의 삶에 보듬고 살아 가려는 삶의 의지 등 후회가 지닌 다양한 의미연관이 해명된다.

수정·만회의 가능성이 없는 후회는 처음에 자괴감, 좌절감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비록 동일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상황에서라도 스스로 칭찬할 만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후회의 무게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 빛을 갚을 당사자가 사라졌을 때 후회는 미래와 슬픈 약속이 된다. 빛 갚음의 상대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빛 갚음이 다른 타자에 대해 은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뜻한다. 샘은 자신을 따르는 쿠엔틴에게 여자 친구를 사귀는 조언도 하고 큰 무대를 장식할 마지막 곡으로 쿠엔틴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하자며 용기를 북돋운다. 그리고 살인자의 노래를 할 수 없다며 쿠엔틴이 음악과 절연을 선언했을 때, 기타를 선물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마지막 조언을 한다. “젊은 인생 하나 또 망치긴 싫어.”라는 샘의 말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자 말씀의 실천이다. 아들과 쿠엔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아들에 대한 빛이 쿠엔틴에 대한 은혜로, 미안함이 고마움으로 변하는 의미론적 전환이기도 하다.

후회의 대상은 과거 어떤 행위이고, 후회의 주체는 현재의 반성적인 자신이라는 생각은 표피적인 이해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깊은 후회의 말은 “내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란 말인가!”²⁵⁾이다. 즉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후회이다. 후회는 삶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서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면서 삶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격체로 복원되는 계기이다. 후회는 현재의 자신도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25) 재인용: M. Scheler, 위의 글, S. 40.

영향받고 있음을, 따라서 현재란 과거 및 미래와 단절되지 않는 연장을 가진 것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감정적 증거이다. 그러면서 후회는 찰라마다 퇴락되고 매번 순간에 머무는 분절된 수많은 자아들이 삶의 흐름 속에서 비로소 현재의 자신으로 귀속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회는 자기망각으로부터의 탈주이자 과거-현재-미래라는 도정 속의 존재로서 자기책임에 대한 물음이다.

후회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넘어, 남은 생은 또 어떻게 살아가갈 것인가에 대해 자기 존재에게 자신이 던지는 물음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획, 각오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여 단단해질까? 여기에서 후회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후회는 인간이 시간적 제한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계기이다. 아직까지 갚지 못한 빚, 영원히 다 갚을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은 더 갚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빚에 대한 불안은 아직은 후회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엄명과 함께 죽음을 선제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연다.

4. 결어: 후회와 인격

이 글은 영화 <러덜리스>를 대상으로 과거 자신의 과오에 대한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후회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삶, 인격성, 자기 존재에 대한 후회의 의미라는 종착점으로 달려왔다. 후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러덜리스>의 샘처럼 깊은 후회로 신음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샘의 경우가 특별하며, 깊이 후회할 정도의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인 수준의 과오에 대해서는 후회를 피할 수 있는 나름의 방어책, 변명거리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현대 정보사회의 특징인 것 같다.

교육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후회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²⁶⁾ 자칫 하면 겨우 달랜 상처가 후회 과정에서 덧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회의 기회는 가볍지 않은 공적인 과오에 대한 일종의 처벌로서, 예컨대 학교에서 반성문, 직장에서 시말서, 법원에서는 반성문(예: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등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후회가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의문이다. 한편 후회를 지원자의 삶, 체험과 관련지어 인격, 인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대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업 등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에서 좌절, 실패, 위기 및 그 극복 사례, 버킷 리스트 등의 항목 작성하기는 부정적인 체험에 대한 후회가 한 사람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후회의 부정성, 특히 우울감이나 자신감 저하 등의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흔히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잘 해라.”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셸러에 따르면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즉 과거의 과오에 대한 후회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일 수 있다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후회를 내려놓은 채 더 잘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과거의 잘못이 자신의 내면을 더 괴롭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셸러는 위의 조언과 반대로, 오히려 “후회하라! 그럼으로써 더 잘 하라.”가 맞는 조언이라고 말한다.²⁷⁾

후회와 대립되는 것으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자기만족이다. 스피노자는 이 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비한다. “후회는 원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며, 자기만족은 원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관념

26) 저술 목적과 저자가 누구를 독자(예컨대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로 상정하는가에 따라 저술의 내용이 다르겠지만, 레스 페룻의 『후회의 심리학』의 소제목들을 보면 후회는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 2장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3장 “...하기만 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정복하려면, 4장 버려야 할 완벽주의, 5장 후회라는 위험한 비탈길 등.

27) M. Scheler, 위의 글, S.49~50.

을 동반하는 기쁨이다.”²⁸⁾ 어떤 사건에 관련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표상에 비롯되는 것이 후회의 슬픔이고, 긍정적인 행위에 대한 표상에 비롯되는 것이 자기만족의 기쁨이라는 뜻이다. 후회의 위험성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족이 자신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후회가 지나치면 위험하듯, 자기만족이 지나쳐도 자만감, 자기도취, 자기중심적 사고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즉 후회와 자기만족은 각각 그 대상이 다를 뿐, 즉 해당 행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다를 뿐이고, 둘 다 지나치면 위험한 것이지, 후회와 자기만족 자체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이다.

후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후회의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첫째, 철학 상담치료이다. 여기에서는 상황 평가와 가치판단, 자기인식과 자기실현, 현명한 삶의 기술 등과 영혼의 치유, 자기정체성, 의미지향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²⁹⁾ 후회를 철학 상담치료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의 하나는 김선희의 ‘미래 관점에서 후회하기’이다.³⁰⁾ 하지만 여기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미래 추구에 한정해서 후회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후회의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감정들과 함께 드러나는 ‘자기 직면하기’이다. 따라서 철학 상담치료에서도 인간의 본성에서 배제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해 더 다가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혼합되고 자아와 직결된 후회, 수치심,³¹⁾ 자존감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8) B. 스피노자, 위의 글, 제3부 정리 51, 177쪽.

29) 참조: 다그마르 뎀너, 『철학상담치료와 심리치료, 무엇이 다른가?』, 김성진 옮김, 서광사, 2017, 80~95쪽. 김석수 외, 『왜 철학상담인가』, 학이시습, 2012,

30) 김선희, 「철학적 사고실험을 적용한 상담사례 분석」, 『철학연구』, No. 97, 2012, 171~204, 185~188쪽과 198~199쪽.

31) 수치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하병학, 「“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 수치심의 여러 얼굴들과 그 작동의 기저」, 『인문과학』, 제115집, 연세대학교 인

둘째, 인성/인격 교육이다. 현재 국내 교육계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담론 중 하나가 인성/인격 교육이다.³²⁾ 인격과 관련해서 슈페만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인격의 연속성”, “통일된 자아”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자신의 이전의 약속 위반을 후회하지 않고,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만 우리에게 약속하는 사람의 약속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인가?”³³⁾

즉 어떤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 말하는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약속, 의지에 대해,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도덕성도 자신을 스스로 대상화하는 능력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³⁴⁾ 후회는 바로 그러한 능력 중 하나이다. 후회는 자신의 불편한 과오를 초점으로 자신을 대상화함으로써 인격의 연속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계기라는 점에서 인성/인격 교육에서의 후회의 가치와 교육적 방안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학연구원, 2019. 하병학, 「인간 이해와 수치심 - 아리스토텔레스와 김상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17집,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32) 한국의 인성교육과 미국의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 personalily education)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영주, 『수치심 기반 인성독서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0, 3-8쪽.

33) 로베르트 슈페만, 『왜 인격들에 대해 말하는가』, 박종대 외 옮김, 서광사, 2019, 334쪽.

34) 로베르트 슈페만, 위의 글, 29쪽.

참고문헌

- 공자, 『논어』, 김석원 옮김, 숲이편 10장, 해원출판사, 1994.
- 김민수, 「영화 영성 교육 - 러덜리스-Rudderless」, 『교육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Vol. 450, 2015, 140~143.
- 김석수 외, 『왜 철학상담인가』, 학이시습, 2012.
- 김선희, 「철학적 사고실험을 적용한 상담사례 분석」, 『철학연구』, No. 97, 2012, 171~204.
- 김한승, 「후회 없는 삶은 바람직한가?」, 『범한철학』, 제53집, 2009, 319~338.
- 나도원, 「살인자의 음악에 감동한다는 것은 - 영화 <러덜리스>에서 밴드 '그린 카네이션'까지」,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Vol. 89, 2015, 344~352.
- 이영주, 『수치심 기반 인성독서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0.
- 정영숙, 「대학생의 후회 유형과 후회 관련 정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1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49~67.
- 하병학, 「“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 수치심의 여러 얼굴들과 그 작동의 기저」, 『인문과학』, 제115집,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177~204.
- 하병학, 「인간 이해와 수치심 - 아리스토텔레스와 김상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17집,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215~242.
- 허태균, 「사후가정사과의 심리적 기능과 응용적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 8, No. 2, 2002, 171~190.
- 쇼펜하우어, A.,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홍성광 옮김, 을유문화사, 2009.
- 슈패만, 로베르트, 『왜 인격들에 대해 말하는가』, 박종대 외 옮김, 서광사, 2019.

철학탐구 제60집

- 스피노자, B., 『에티카』, 강영계 옮김, 제3부 정서의 정의 27, 서광사, 1990.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옮김, 도서출판
길, 2011.
- 원, Ch.,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입문』, 김요한 옮김, 서광사,
2011.
- 키에르케고르, S. A., 『이것이나 저것이나』, 제2부 하, 임춘갑 옮김, 종로서
적, 1981.
- 패럿, L., 『후회의 심리학』, SFC출판부, 2005.
- 펜너, 다그마르, 『철학상담치료와 심리치료, 무엇이 다른가?』, 김성진 옮김,
서광사, 2017.
- Scheler, M., “Reue und Wiedergeburt”, Vom ewigen im Menschen, Ges.
Werke 5. Bern. 1954.
- 영화 ‘러덜리스 Rudderless’, 감독: 윌리엄 H. 머시, 주연: 빌피 크루덱, 2014년.
<https://www.youtube.com/watch?v=WLpoRg4s9MY&t=2453s>
- 이익, <성호전집>, 48권, 명, 6가지 후회에 대한 명[六悔名],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489A_0480_030_0010

The Movie “Rudderless”, What does it mean that we regret

HA, Byung-Hak (The Catholic univ. of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meaning of regret for the mistakes of those who have done in the past. In traditional Western philosophy, regret was not the main subject of discussion. Because regret was viewed as a personal feeling of pain and displeasure. Unlike Aristotle and Spinoza, who stand in this tradition, scholars who speak positive meanings of regret are Schopenhauer, Kierkegaard, and Scheler, etc.

In particular, Max Scheler criticizes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structural connection of regret in traditional philosophy. And he explains the moral meaning of regret from a phenomenological point of view. This article uses the movie <Rudderless> as a subject to explain the meaning of regret. Particularly, I pay attention to Sam's regret as a father. Most people think regret is negative.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regret is related to one's own mistakes in the past, cannot be altered, and is therefore useless.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regret are described as follows. Regret relates to one's own voluntary actions. Regret is due to value/moral judgment beyond fact judgment. The reason why regret is persistent and painful is that it is associated with empathy for the other's feelings. Also, because regret is a phenomenon within consciousness, it is difficult to forget. The positivity of regret is due to the orientation to alter, which is not a condition of actual fulfillment. Furthermore, regret is not a question about one's past actions, but about one's existence. In these senses, I propose that it is

철학탐구 제60집

necessary to rethink the value and meaning of regret and how to use it in philosophical counseling, personality education, etc., beyond the negative view of regret.

Key words: regret, movie <Rudderless>, Max Scheler, counterfactual thinking, impossibility of alteration

하병학 E-mail : specchact@catholic.ac.kr

투 고 일	2020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20년 10월 24일
게재확정	2020년 11월 16일